

A Thousand Blues

# תשפ"ב תשפ"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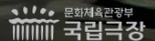


당신들 모두 내겐 파랑이었죠.  
천 개의 파랑은 당신들이에요.

A Thousand Blues  
천 개의 파랑



2025년 2월 22일(토)~3월 7일(금)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화, 목, 금 오후 7시 30분 | 수 오후 2시 30분, 7시 30분  
토 오후 2시, 7시 | 일 오후 2시 (월요일 공연 없음)

공동주최  서울예술단  국립극장 제작  서울예술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천 개의 말보다 더 설레는 꿈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늘보다 좀 더 먼 세상  
나의 세상



<천 개의 파랑>, 다시! 봄, 다시! 정체성

공연 소개

지난해 초연으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천 개의 파랑>을 다시 무대에 올립니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공연입니다. 인간이 만든 생명이 없는 로봇에게 삶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공연 일정

다시 봄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봄이지만 한 번도 쉽게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과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울봄도 우리에게는 고통과 인내를 강요합니다. 정치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천 개의 파랑>을 통해서 잠시나마 위안을 받았으면 합니다.

공연 소개

서울예술단은 정체성에 대한 증명을 공연과 레퍼토리의 반복을 통해서 해야합니다. 그러나 서울예술단에게 요구하는 정체성은 장르적인 부분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난 39년 동안 서울예술단은 동시대의 관객과 호흡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통해서 대중성과 동시대성을 획득했습니다.

한국적인 소재와 동시대인이 공감하는 주제로 음악극을 만들었고, 공연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비평가들과 관객의 칭찬과 질타를 받았습니다. 서울예술단은 창작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공연예술계에 다양한 예술가들과 공동작업을 했고, 공연예술창작에 기여했습니다. 단원들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면서 동시대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대중성을 획득하느냐에서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지부진하다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창작의 과정은 결정된 것을 따르는 상명하복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절충하고 타협하여 무대에서의 극적인 효과를 통해서 관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만들어진 작품도 재공연을 통해서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공석인 단장 겸 예술감독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합니다.

공연 소개

광주에 소재한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ACC)으로 단체가 이전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안받았습니다.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 시행과 현실에서의 차이를 인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예술시장과 창작 현장의 문제와 생활 터전을 바꾸는 결정은 반드시 단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급할수록 쉬어가라는 말을 되새겨 봅니다.

공연 소개

<천 개의 파랑>은 인간들에게 잊고 있었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 개의 파랑>을 통해 전국의 많은 관객에게 찾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울예술단을 국립예술단체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이 공연을 위해 노력한 우리 단원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창작진과 기술진, 그리고 각 부분의 크루들에게도 항상 고맙습니다. 국립극장과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공연 소개

특히 <천 개의 파랑>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고미경, 정유희, 이영규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서울예술단은 행복했습니다.

공연 소개

## 천선란 작가와 『천 개의 파랑』

SF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 2019년 『무너진 다리』을 출간하고, 2020년 『천 개의 파랑』으로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 대상을 수상하면서 데뷔했다. 이후 장편소설 『밤에 찾아오는 구원자』 『나인』 『랑과 나의 사막』, 소설집 『어떤 물질의 사랑』 『노랜드』, 연작소설 『이끼숲』 등을 출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으며, 그 결과 예스24 독자가 뽑은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1위에 선정되었다. 특히, 『무너진 다리』는 2020년 제7회 SF어워드 장편 부문 우수상, 『나인』은 2022 제9회 SF어워드 장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으며, 『천 개의 파랑』은 매일경제·교보문고가 뽑는 <2021년을 여는 책>에 선정되는 등 큰 사랑을 받으면서 2024년 연극 및 창작가무극으로 제작되었다.

작가 소개

2020년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대상을 수상하면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이래 현재까지, 15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천선란 작가의 대표작이다. 미래 사회 배경에서 발전 된 과학기술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을 조명하는 작가의 스타일이 가장 분명히 반영된 작품이기도 하다. 『천 개의 파랑』은 각종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편화된 근미래를 배경에서, 고장이나 폐기될 예정인 휴머노이드 기수 ‘콜리’, 더는 달릴 수 없어 안락사될 예정인 경주마 ‘투데이’, 다리를 치료할 수 없어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은혜’, 투입된 로봇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연재’ 등 자본과 과학기술 만능주의에 의해 부서지고 상처 입은 존재들의 ‘멈춰 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이야기다. 빠르게 발전하는 세계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존재를 응시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미래를 향해 걷는 법에 대해 고민하는 이야기. 행복과 위로, 애도와 회복, 자유로움과 같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작품이다. 그리하여 작품은 동물과 로봇 그리고 인간, 종을 넘어선 이들의 아름답고 찬란한 회복의 연대로까지 나아간다.



2035년의 한국, 경마를 하기 위해 '기수 휴머노이드'가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그 중 C-27은 연구원의 실수로 개발 중인 학습용 휴머노이드 칩을 갖게 되고, 천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 자신과 호흡을 맞추는 말인 '투데이'가 어느 순간부터 달릴 때 행복하지 않다는 걸 느낀 C-27은 투데이를 멈추기 위해 결국 스스로 낙마를 하는 선택을 한다. 그렇게 허반신이 부서진 채 폐기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C-27에게 누군가가 나타난다.

과거 3퍼센트의 생존확률로 화재현장에서 살아남은 보경은 300퍼센트의 책임감으로 두 딸인 연재와 은혜를 키우고 있다. 은혜는 매일 마방에 휠체어를 타고 와서 안락사를 기다리는 '투데이'를 바라보고, 연재는 폐기처분을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는 C-27에게 호기심을 느낀다. 그렇게 전 재산을 털어 C-27을 사오고, 그를 '콜리'라고 이름 지어준다.

고요하던 세 모녀의 삶에 들어온 '콜리'는 이들에게 잔잔한 파동이 되어주는데...



In the year 2035, factories in Korea manufacture humanoid jockeys for horse racing. Among them is C-27, who is accidentally given a learning humanoid chip by a researcher, enabling him to acquire a vocabulary of a thousand words.

When C-27 notices that his partner horse, Today, is no longer happy while running, he sacrifices himself by falling off the horse, resulting in severe dismemberment of the lower half of his body. Later, as C-27 lies in a dilapidated state awaiting disposal, someone stumbles upon him.

Having survived a fire in the past with only a three percent chance of survival, Bo-gyeong raises her two daughters, Yeon-jae and Eun-hye, with an immense sense of responsibility. Eun-hye, confined to a wheelchair, visits the stable at the racetrack every day to observe Today, who is soon to be euthanized. Meanwhile, Yeon-jae is fascinated by C-27, who gazes up at the sky while awaiting disposal. She spends all her money to buy C-27 and names him Collie.

Collie thus enters the tranquil lives of the three women, creating gentle ripples...

1막

- 01 프롤로그 - 천개의 파랑 Part 1
- 02 오늘도 달려야 해 (오프닝)
- 03 천개의 단어
- 04 투데이와 콜리
- 05 경마
- 06 이상해 (투데이와 콜리 Reprise)
- 07 네발 로봇
- 08 그 때 비로소 나는
- 09 원원
- 10 화이트 크리스마스
- 11 단 3퍼센트

2막

- 12 우리도 배우는 종이야 (연주곡)
- 13 콜리
- 14 원원 (Reprise)
- 15 초코 케이크
- 15a 추격전
- 16 동물들의 삶
- 17 행복만이
- 18 어쩌면 우린
- 19 알 수 있을까
- 20 천천히
- 21 기다리지만
- 22 외롭지 않길 바라
- 23 경마 (Reprise)
- 24 천개의 파랑 Part 2
- 25 피날레 - 천천히 (Reprise)

03. 천 개의 단어

콜리

찬란하다  
찬란하다  
찬란하다

이 단어를 알 줄은 몰랐어  
내 안에 있는 단어들  
아는 말 전부 다 꺼내고 싶어  
어디까지 알고 있지?  
끝도 없이 쏟아내고 싶어  
여기 화물차 안에  
수 많은 단어들이 공간을  
가득가득 채우게

노랗다  
붉다  
파랗다  
검다  
희다  
아까다  
빠르다

무섭다  
차갑다  
소름 끼친다  
미안하다  
출다  
덥다

쟁하다  
아프다  
달다  
쓰다  
나쁘다  
불편하다

보고싶다  
침묵하다  
밝다  
예쁘다  
아름답다!

'찬란하다'란 말로 시작해서  
'아름답다'로 끝나는  
천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나의 세상, 새로운 세상

'좋아한다'란 단어의 그 뜻은  
누군갈 자꾸만 바라보게 된다는 의미  
천개의 단어와 뜻을  
열심히 조립하면  
내 맘속에 있는 얘기  
다 꺼낼 수 있을까

(간주)

'하늘'이란 단어로 시작해서  
'좋아한다'로 끝나는  
천개의 단어론 답을 수 없는  
나의 세상, 궁금한 세상

천개의 단어보다 더 많은 말  
천개의 단어보다 조금은 더 넓은 세상  
선명하고 파란 하늘  
각자 흘러가는 구름  
손을 뻗어 구름들을  
만져 보고 싶어

저 파란 하늘 뒤의 세상엔  
나 모르는 게 얼마나 많나  
수천개의 색으로 물든  
저 하늘 뒤의  
신비한 단어들을  
모두 배우고 싶어  
이 길 끝에는  
새로운 모험이 기다려

천개의 말보다 더 설레는 꿈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늘보다 좀 더 먼 세상  
나의 세상



II. 단 3퍼센트

보경

힘껏 달려봐도  
살이란 때론 길을  
멋대로 그 방향을 틀어버려  
예고없이

상처투성으로 아프고 뒤틀려도  
어쩌면 그게 끝이 아닐지도 몰라  
절망 앞에서

단 3퍼센트  
그 3퍼센트 남아있는 한 희망도 있다는 말  
단 3퍼센트  
살이 아직은 계속 될 수 있다는 말

비록 지금 그럭저럭 삶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지만  
다 괜찮아  
많은 시선 없어도 돼  
그 대신에 한 사람의 시선이  
날 이렇게 온전하게 해주니까

여보 눈 좀 떠봐  
집으로 돌아가자  
3퍼센트도 살았는데  
80퍼센트는 왜 못 살아

단 3퍼센트  
그 3퍼센트 생존율에도 살아남았으니  
그 댓가로 300퍼센트의 삶을  
책임져야만 해 그래야만 해

연재

다 괜찮아

하고픈 일

포기하는 건 많이 슬프지 않아

엄마, 언니

미안한 그 표정을

마주하는 게

더 슬프고

불편하니

언제나 나는 다 괜찮아

은혜

다 괜찮아

생일선물

포기하긴 좀 슬퍼도

엄마, 동생

미안한 그 표정들을

더 슬프고

불편하니

언제나 난 다 괜찮아



22. 외롭지 않길 바라

연재

인도로 올라가는 완만한 경사로  
가게로 연결되는 반가운 리프트  
횡단보도의 넉넉한 보행자 신호  
모두 경계의 벽을 허무는 일

누군간 너무 쉽게 수술을 말하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슬프지만 이 세상 그 누군가에겐  
그저 불가능과도 같은 비용

그리 어렵지 않은 일  
좀 여유만 있다면  
자유를 주기 위해  
마음을 연다면

이 바퀴가 가는 곳  
그 곳이 어디라도  
오르지 못할 곳 없고  
못 넘을 곳 없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온전한 두 다리만이 아닌 그런 세상  
두 다리 없이도  
모두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가 있는 곳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건  
비싼 돈 드는 수술이 아닌 그런 세상  
계단을 오르는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 갈 수가 있는 곳

그 누구라도  
그들 속에 버려진 채  
울지 않게  
서러움은 거둬내고  
외롭지 않게

(간주)

언니에게 정말 필요한 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순간  
서로를 위해서  
참아왔던 것들 이제는 다 풀어낼 시간

수많은 사람들 멀리 데려다 주는  
이 바퀴가 언니에게도 그럴 수 있길  
언니 얼굴에 그들이 모두 가시고  
자유를 즐기며 외롭지 않길 바라



S-03

그리움이 어떤건지  
설명을 부탁해도 될까요?

콜리

“저를 행복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당신이 행복해지면 돼요.  
괜찮지 않나요?”

경마를 위해 만들어진 기수 휴머노이드.  
연구원의 실수로 개발 중인 학습  
휴머노이드 칩이 잘못 삽입되었다.  
자신의 파트너 투데이가 더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낙마한다.  
하반신이 부서져 쓸모없어지게 되어  
폐기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때 연재를  
만나 인생 2막이 시작된다.

연재

“나는 내가 좋아했던 걸  
싫어한다고 믿고 살았는데,  
아니더라고. 너를 만지면서  
알게 됐어.”

열일곱 살. 한때는 로봇 연구원이  
꿈이었으나 소프트 로봇  
연구프로젝트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고 꿈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중  
부서진 콜리를 발견하고 직접  
다리를 고쳐준다.

은혜

“미안해하는 표정을  
마주하는 게  
더 슬픈 일인니까.”

열아홉 살. 연재의 언니이자 보경의  
만남. 일곱 살 때 척수성아마비로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돼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경주마 ‘투데이’를  
돌보는 것이 은혜의 큰 기쁨이다.

보경

“그리움 시절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거야.”

연재와 은혜의 엄마. 한때 배우로  
활동했으나 사고 이후 얼굴에 화상을  
입고 꿈을 포기했다. 자신을 구해준  
소방관과 사랑에 빠져 연재와 은혜를  
낳고 살아가다 사고로 남편을  
잃는다. 닭요리 전문점을 열어 두  
딸을 책임지고 살아간다.

소방관

“그러니까 저에게 3퍼센트라는  
뜻은 100퍼센트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보경의 남편. 보경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구해준  
담당 소방관. 그 후 보경과 결혼해  
은혜와 연재를 낳고 살아가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지수

“너의 머리와 내 지혜가  
만난다면 우리 그 누구도 막지  
못할 팀이 될 거야.”

해맑은 연재의 반 친구. 로봇에  
재능이 있는 연재를 알아보고 함께  
차세대 다르파 대회에 나갈 것을  
제안한다.

민주

“다 알 거야.  
이곳에  
간혀있다는 것도.”

마방 관리인. 시크해보이지만  
콜리의 엉뚱한 질문들에 유일하게  
대답을 해주며 가장 먼저 인간처럼  
대해준 사람이다.

복희

“그러자 말들에게  
요구된 건  
더 빠른 속력이었어요.”

경마장 수의사.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녀는 투데이를 포함한  
경마장의 말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서진

“고작 이틀에서 14일로 삶을  
연장한다고 뭔가 달라질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

경마장 비리에 대해 취재를 하려고  
마방에 몰래 침입한 기자. 이후  
연재 일행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점장

“베링엔 여자끼리 100프로  
우승할 확률은 없어. 그러나  
99.9퍼센트나 0.1퍼센트나  
모두 다 가능성이 있는거지.”

연재가 일하는 편의점 점장. 경마를  
좋아해 돈을 자주 잃는다.





원작  
천선란

내가 너무 빠르게 달리고 있다고 느꼈을 무렵, 그 속도가 내 관점을 넓게 하고 내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 그리하여 하늘을 쳐다보지 못할 만큼 몸이 뻣뻣하게 굳어감을 느꼈을 즈음 <천 개의 파랑>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찬란한 표정을 짓고 있는 어머니의 눈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미래에 있고, 나의 현재는 언젠가 도달하게 될 미래를 위해 쓰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느껴졌고, 어쩌면 정말로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나아가던 제 삶에 제동을 건 건 스물한 살, 어머니의 뇌출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존율 3%에서 살아남는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원인 불명의 치매와 함께 마치 천 개의 단어를 품고 태어난 아이가 되었습니다. <천 개의 파랑>을 쓰기 전까지 불안한 미래를 막아내기 위해 달려오던 시간은 어느 날, 실로 오랜만에 외출하여 하늘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빛에서부터 다시 차분하게 제 주로를 찾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천 개의 파랑>은 그런 3% 투성이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남을 확률, 살아가며 행복할 확률, 작가가 될 확률, 그리고 그 작품을 음악으로 다시 듣게 될 확률. 이제 제가 3%라는 것은 '0가 아니다'일 뿐입니다. 0이 아닌 이상, 그것은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기회, 행복을 품고 있는 숫자입니다. 스물한 살의 저는 몰랐을 것입니다. 버티고 살다 보면, 네 글이 뮤지컬로도 나온다는 것을. 문장이 가사가 될 때, 울림이 소리가 될 때, 상상이 이미지가 될 때, 그리고 떨림이 울림이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천 개의 파랑> 인물들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더 잘 표현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배우분들과 어렵고 낯선 도전을 선택해주신 관계자분들, 그리고 감정을 노래로 만들어 주신 작곡, 작사가님, 몸으로 언어를 표현하는 안무가님, 제게 광활한 세상을 펼쳐주실 연출가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곧 만나게 될 콜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도 아주 열게나마 푸른 빛으로 남길 바랍니다.

<천 개의 파랑>의 두 번째 공연을 축하합니다. 원작인 '천개의 파랑' 책을 처음 읽고서 이 이야기는 낮은 가능성에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3퍼센트인 보경을 구해낸 소방관, 폐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콜리를 전 재산을 주고 데려온 연재, 안락사를 앞둔 투데이가 달릴 수 있게 애쓰는 은혜를 비롯해 모두 다 사랑스러운 인물들이어서 쓰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대본과 가사를 쓰고, 초연 공연을 앞둔 어느 날 갑자기 저는 혈액암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암 환자가 되어 모든 일상을 멈추고 수술,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까지 하며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두려울 때마다 초연 때 보지 못했던 <천 개의 파랑> 재연을 보러 가는 상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시간이 영금영금 기어서 흘러갔고, 콜리가 돌아온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비록 아직 투병 중이지만 이번에는 극장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한없이 기쁘고 설렙니다.

저에게 무한한 위로와 용기를 준 이 작품이 관객분들에게도 마음의 힘을 주길 바랍니다. 극장을 찾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극작  
김한솔



작곡  
박천휘

뮤지컬은 가장 인간적인 사람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상력이 하나의 큰 그림을 향해 조합되고 어우러지는 작업이기에 그 결과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초연은 매 순간 서로의 손을 잡고 허공을 향해 발을 딛는 서커스의 공중 곡예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노력과 상상들이 모여, 가끔은 만든 사람들도 부끄럽지 않고 관객들도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작은 기적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천 개의 파랑>은 그런 기적이 되었고, 일 년도 안 되어 이렇게 더 큰 극장에서 관객을 다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연 때는 제 일만 하기도 바빴지만, 이번 재연에서는 홍보 정리를 자진해서 맡았습니다. 뮤지컬 작곡가의 역할은 보컬 스코어(합창 피아노) 악보를 완성하는 것이지만, 제 손을 떠난 그 악보는 편곡가를 통해 총보가 되고, 다시 음악 감독님과 음악팀의 수정 및 무대적 재해석을 거쳐 14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매일 새롭게 울려 퍼집니다. 초연이 끝난 후 수거한 연주자들의 손때가 묻은 파트 악보(디지털 악보기 때문에 '손때'라는 표현은 비유적임을 밝힙니다)를 한 달여 동안 직접 한 땀 한 땀 확인한 결과, 저는 788페이지 분량의 오케스트라 총보와 손목의 굳은살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은 모든 기적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그저 음악팀 내의 기적이지만, 다른 분야라고 다를 리 없으며, 언제나 좋은 작품은 수많은 사람의 숨은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너무나도 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땀 한 땀 수고로 작품을 함께 만들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 개의 파랑>을 위해 박천휘 작곡가의 음악을 조율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었고 흥미진진한 도전이었습니다. 쇼에 나오는 음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빛나고, 섬세한 발라드부터 리드미컬하고, 강력한 프로듀싱 넘버까지, 이 모든 스타일을 담아내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음악과 이야기의 감정의 범위를 고려할 때, 저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렇게 큰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것이 특히 행운이라고 느낍니다. 실제 금관악기와 목관악기와 함께 실제 현악기를 연주할 기회는 이 음악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복잡한 극장의 색깔의 범위를 탐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편곡하는 것을 즐긴 만큼 여러분도 그 음악을 즐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편곡  
Greg Jarrett



안무  
김혜림

지난해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천 개의 파랑>을 2005년 다시 만날 수 있음에 너무나 고맙습니다. 작품은 근미래를 다루고 있지만, 생명 또는 생명이 아닌 존재에도 가치를 부여하는 유토피아적 미래를 꿈꾸게 하는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안무는 휴머니드 시대와 캐릭터들 간의 상호작용 안에서 스토리텔링과 맞닿는 다양한 춤이 사용됩니다. 직관적이거나 정서적인 시각화를 이루는 장면에서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상적 춤 언어를 입히고, 휴머니드 장면 또는 경마 장면 등 고유의 특성적 움직임 필요하는 생동감, 역동성은 서울예술단원들의 독보적인 에너지와 섬세한 감성으로 더욱 풍성하고 화려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항상 최고의 열정과 하모니를 이뤄주시는 서울예술단 단원분들과 제작진, 창작진, 스태프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천히, 빨라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그려내는 <천 개의 파랑>을 꿈꾸며... 감사합니다.

<천 개의 파랑> 첫 공연, 은몸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무대, 음향, 오케스트라, 배우, 조명, 퍼펫, 모든 파트가 서로에게 집중하며 한순간 한순간 맞춰가던 현상이 떠오릅니다. 배우들과 매 공연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노력했던 그 순간이 행복하다 느꼈습니다. 이런 게 살아있는 공연이구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 예술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작의 인물들이 무대 위에 살아 숨 쉬는 인물들로 탄생하고 발전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운 과정이고 이 현장에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음악 섬세한 표현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 깊이를 더해준 이하영, 정찬민 감독, 오케스트라에도 감사한 마음을 남깁니다. 김한솔 작가님과 박천휘 작곡가님의 대본과 음악에 색채감을 더해준 편곡과 무대와 연출과 안무. 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진 한국의 자랑스러운 창작물로 전 세계에 사랑받는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악감독  
신인경





박나연  
무대미술

원작소설 속 배경은 시간상으로는 근 미래 2035년으로, 공간적으로는 경마장과 그 주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휴머노이드들이 일상에 속속 침투하여 인간의 일자리들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디지털적 환경 속에서 아날로그적인 사랑을 구현하려는 이들의 따뜻한 드라마는 시공간적인 제약을 벗어나 펼쳐집니다. ‘단 3퍼센트’라는 노래 한 곡이 불리는 동안 무대는 병원에서 신혼집으로, 화재현장으로, 은행으로, 닭요리전문점으로 변합니다. 한 장면에 다섯 곡이 아니라 한 곡에 다섯 장면입니다. 이처럼 물 흐르듯 끊임없이 흘러가는 공간, ‘Seamless Space’. 그것이 이 작품의 무대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수직 수평으로 움직이는 다수의 LED 패널들을 활용합니다. 패널로 만들어진 선은 바닥에도 벽에도 천장에도 있습니다. 그 선들은 몬드리안의 검은 선처럼 공간을 구획하고 직조합니다. 그 공간은 다시 물 흐르듯 흘러갑니다.

‘C-27’ 이었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콜리’가 되는 이야기. <천 개의 파랑>은 현대와 근미래의 사회, 그리고 인간상의 모습에 대해 휴머노이드 로봇 콜리의 시선으로 되돌아볼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천 개의 단어만이 프로그래밍 된 콜리는 그 한정된 세계 속에서도 타자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더 인간다운 순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빛의 모티프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순수한 존재로서의 콜리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 콜리의 관점으로 콜리가 보는 세상, 느끼는 감정을 중심으로.. 천 개의 단어로 한정된 콜리의 세상은 ‘C-27’의 세계로 프로그램 속 영역의 한계와 주입된 세계를 빛으로 이미지화합니다. 이는 ‘도형’의 형태로 표현하며, 경계가 뚜렷하고 평면적인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C-27에서 ‘콜리’가 되어 달라질 세계와 차별합니다. 천 개의 단어를 넘어 조금 더 넓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와 희망의 세상은 ‘파랑’의 색채를 중심으로 파생되는 인접 색으로의 확장을 거쳐 다양한 색채가 발현되는 것, 그리고 구름, 바람 등 자연의 이미지들을 입체감과 공간감이 느껴지는 형태로 표현합니다. 이 두 세계의 빛은 대조되기도 하고 공존하기도 하면서 콜리의 시선과 감성을 시각화합니다. 천 개의 파랑 속, 콜리가 보는 세상을 통해 무너지고 단단해진 감수성과 감정들이 동요되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박성희  
조명디자인



김보연  
영상디자인

<천 개의 파랑>의 무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LED 패널은 공간 전체를 감싸기도 하고, 수직과 수평으로 움직이며 여러 공간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LED 패널의 이동만으로도 전혀 다른 공간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바라보며, 영상 또한 마찬가지로 단순히 배경만으로는 활용이 아닌 <천 개의 파랑>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을 그려내길 바랐습니다. 콜리의 시선에서 바라본 하늘과 쏟아지는 데이터들, 투데이가 힘차게 뛰던 경마장과 조각조각 붙어있는 닭요리 전문점의 모습까지. 각 공간을 그려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기억(Memory)”였습니다. 콜리는 어떻게 학습을 할까 라는 생각은 콜리에게 저장된 하늘의 데이터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연재와 은혜, 보경의 기억과 투데이가 바라본 경마장의 기억까지를 이어보니 작품에서 사용될 영상디자인이 어느덧 완성되는 순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파편화되어 부분적으로 남아 있지만 인물들의 가슴 한 켠에 늘 간직해둔 여러 기억의 풍경들이 관객분들에게 전달되길 희망합니다.



부서진 로봇 콜리 그리고 더이상 달릴 수 없는 투데이. 극 중 이 둘의 존재는 무대에서 스스로 움직여질 수 없는 인형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형은 인간과 달리 최소한의 움직임 단위인 관절만이 존재합니다. 구강구조도 없고 근육도 없기에 조종자(인간)의 손길을 대신해 움직여지고 발화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여지기 어려운 인형의 존재가 콜리와 투데이로 구현되었습니다. 시가 맹렬히 도래하는 이 시점에 인간의 도움으로 다시 태어난 콜리와 투데이의 움직임과 질주를 무대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인간과 로봇 그리고 동물, 인형까지, 우리는 모두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지형  
퍼펙트디자인



김필수  
음향디자인

2025년 을사년 새해 창작가무극 <천 개의 파랑>으로 관객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다양한 인간관계의 서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인간과 로봇의 관계, 동물의 생명에 대한 가치와 윤리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작품입니다. 자칫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이지만 좋은 대사와 아름다운 노래들로 채워져 있으며 공연을 보고 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작품입니다. 이번에 다시 작품을 준비하면서 창작진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주제와 메시지를 음향을 통해서 관객분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많은 작업을 하였고 초연보다 더 완성도 있는 사운드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작 기간 함께 한 모든 배우분과 스태프분들의 큰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창작가무극 <천 개의 파랑>이 여러분께 잊지 못할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 개의 파랑>은 사람과 로봇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2035년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용도와 다른 칩이 심어져 불량품 취급을 받는 휴머노이드, ‘콜리’의 시선으로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를 상상하며 의상 콘셉트를 구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의상은 동시대적인 의상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현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하고도 미래적인 가상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로봇 덕분에 삶이 편해졌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색을 잃어가며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노톤 의상을 기본으로 하되, 포인트 색상을 주어 인간임에도 기계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기수 로봇 ‘콜리’는 실제 사람이 입는 기수 의상을 주어 인간보다 더욱 인간적인 감성을 가진 콜리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갇혀있는 보경은 과거지향적인 의상을 주어 그녀의 상황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보경과 함께 살고 있는 은혜와 연재는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표현된 모습의 의상을 주어 인간적인 면을 보여줌과 동시에 작품 안의 메시지를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아주 느리게 하루의 행복을 쌓아가다 보면 현재의 시간이, 언젠가 멈춘 시간을 아주 천천히 흐르게 할 거예요.”라는 콜리의 대사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천천히 달려도 괜찮으니 행복하게 달리자는 말은 2035년이 아닌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일 것입니다.

김지연  
의상디자인



백지영  
분장디자인

창작가무극 <천 개의 파랑>의 재연을 준비하며... 인간은 언어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지만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언어는 자신을 고립시키고 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극의 주인공 로봇 콜리는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모두의 감정을 그대로 흡수해버리며 무관심과 때론 감정 과잉에 외로워하는 인간들에게 소통의 중요함과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점점 각박해져 가는 요즘, 이번 시즌 <천 개의 파랑> 공연을 통해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을 이해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초연을 준비하면서 걱정도 많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작품이었는데, 즐거운 상상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준비하는 기간 또한 미래의 소품, 의상, 환경을 상상하며 즐겁게 작업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먼 미래는 아니지만, 무대 위에서는 아기자기한 컬러와 형태로 보일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로봇을 좋아하는 연재의 방은 침대와 작업공간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벅거 침대가 좋을 거 같았고, 작업 책상은 나의 미래의 작업공간을 상상하며, 데코레이션을 하였습니다. 미래의 편의점은 패키지과 컬러를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콘셉트를 잡고, 편의점에서 일하는 베티 역시 기계적인 로봇의 느낌보다는 치마를 입은 귀여운 로봇의 형태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미래의 생활 속에서 직접 만지고 들고 다니는 모든 소품의 컬러, 형태, 공간 데코레이션, 대도구들은 객석에서 봤을 때 미래의 시공간이 상상된다면 좋겠습니다.

송미영  
소품디자인





펜던 | 진하(펜타곤)



펜던 | 진하(펜타곤)

연재 | 서연정



연재 | 표정(오마이걸)



CAST



이혜인 | 강혜인



보경 | 김건혜



소방관  
**최인형**



지수  
**박재은**



민주  
**이한수**



보경엄마, 손님, 청소담당자  
**정유희**



해설자  
**고석진**



해설자, 소방관, 손님  
**유경아**



복희  
**이혜수**



서진  
**김용한**



점장  
**안재홍**



연구생, 영화감독  
**이종한**



매니저, 소방관, 손님  
**민병상**



관중, 손님  
**최병규**



면접관, 총괄 관리자, 공장장, 소방관  
**금승훈**



베틀, 관중, 학생, 기자  
**이기완**



면접관, 기자, 심사위원  
**고미경**



관중, 공장직원  
**이흥모**



면접관, 관중, 심사위원  
**이영규**



휴머니이드, 관중  
**김현아**

CAST



휴머노이드, 관중, 말  
**박소연**



휴머노이드, 손님, 관중, 말  
**오현정**



휴머노이드, 관중  
**김동호**



휴머노이드, 리포터, 학생, 관중, 말  
**이은솔**



휴머노이드, 학생, 관중, 말  
**최병희**



시민, 학생, 말  
**오지은**



휴머노이드, 학생, 관중, 말  
**김연**



휴머노이드, 학생, 관중, 말  
**오선아**



관중, 손님  
**조근래**



퍼펫티어  
**정명필**



퍼펫티어  
**박형주**



퍼펫티어  
**임원**



휴머노이드, 직원, 학생, 관중, 말  
**박혜정**



휴머노이드, 학생, 관중, 말  
**형남희**



휴머노이드, 학생, 관중, 말  
**정지만**



퍼펫티어  
**임우영**



퍼펫티어  
**권선형**



# <천 개의 파랑>의 또 다른 CAST! ‘로봇’을 소개합니다. 다르파(구조용 로봇), 맹인 안내 로봇, 안내 로봇, 청소 로봇

## 다르파(구조용 로봇)

‘다르파’라는 이름으로 ‘보경’에게 닥친 사고현장에서 생존자를 수색하고 생존확률을 예측하며,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구조용 로봇역할을 한다.



### GO2 | UNITREE ROBOTICS

유니트리가 자체 개발한 360° x 90° 반구형 초광각 인식 4D LIDAR L1을 탑재하였으며, 초소형 사각지대와 최소 탐지거리가 0.05m로 낮아 전 지형 인식을 실현하는 로봇. 최적화된 장애물 회피 전략과 결합하여 로봇이 복잡한 지형을 더 잘 횡단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점프, 스트레칭, 악수, 응원, 퍼팅, 앉기 등 다양한 포즈를 실행한다.



## 맹인 안내 로봇

‘SPOT(스팟)’은 연재가 로봇에 관심을 갖게 된 과거 장면이 ‘네발 로봇’으로 등장하며, 오프닝과 엔딩에 ‘맹인 안내 로봇’ 역할로 활약을 펼친다.

### SPOT | BOSTON DYNA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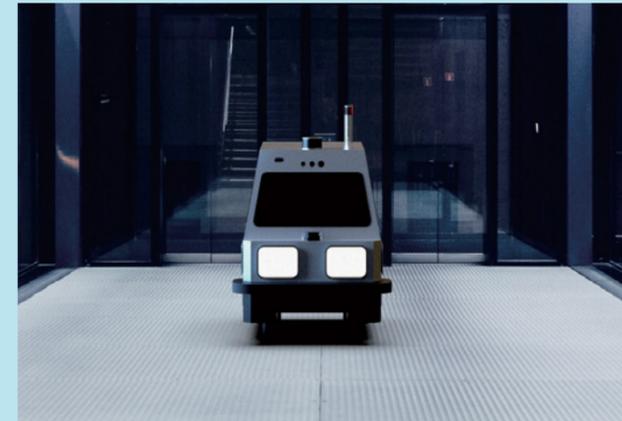
Boston Dynamics에서 개발한 Spot은 견고하고 사용자정의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민첩한 4족 로봇이다. 구조화되지 않은 환경에 적합하며 계단을 오르거나 험한 지형을 다니는 것이 가능하며, 원격감지 및 검사, 건설 모니터링, 현장 문서화, 방사선 감지, 환경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응용 분야 및 산업에 적합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안내 로봇

2035년의 서울. 소프트 로봇 연구 프로젝트 최종 면접 대기실에 등장하는 ‘IROI(이로이)’는 학생들이 면접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회사를 소개하는 안내 로봇으로 등장한다.

### IROI

보안, 방역, 안내 그리고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로봇이다. 때와 장소에 맞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사용자와 함께 생활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불꽃을 미리 감지하고 미리 경고하기’, ‘인구 밀집 시 경고와 함께 안전 담당자에게 알려주기’, ‘숨어있는 도둑을 발견하고 알람 울리기’, ‘범죄자의 얼굴을 인식하여 경찰에 연락하기’, ‘병실을 돌아다니며 의사와 화상 통화하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 등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큐리티 로봇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청소 로봇

‘Patrover(패트러버)’는 거리의 수호신 ‘스트린’이라는 이름으로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 로봇 역할을 한다. 거리에 버려진 롱 스카프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게 되자 연재가 고쳐준다.

### Patrover

Patrover는 실내 뿐 아니라 실외 보안에 특화된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다. 악천후 등 혹독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외장과 부품들로 제작되었으며, 계절과 무관하게 공원이나 시가지, 발전소와 같은 산업현장을 오가며 안전과 보안을 살피는 데 특화되어 있고, 안전/보안 AI 기능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한다. 또한, 파손된 아스팔트나 인도를 감지하거나 노면의 블랙아이스를 감지하기도 한다.





# 01 천개의 파랑 Part 1

Lyrics by Hansol Kim  
Music by Chunhwi Park

♩ = 95 콜리 솔로

Voice: 천개 의 - 단 어 들 은 - - 모두 하 - 늘 이 있 - 조

Piano: *pp*

8

Voice: - 파랑 파 - 랑 눈 부 시 - 고 찬 - 란 한 - 하 늘      당 신 들 - 모 두 내 - 겐

14 rit. . . . .

Voice: - 파랑 이 - 었 조      천개 의 파랑 - 은 당 - 신 들 이 에      요

Piano: rit. . . . .

# 03 천개의 단어

Lyrics by Hansol Kim  
Music by Chunhwi Park

♩ = 140 콜리 : 찬란하다.

Piano: 화물칸에 모인 기수 휴머노이드들.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화물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움직임으로 눈을 뜬 콜리 (C-27). 창문을 통해 해가 떠올라 밝아진 세상을 바라본다.

5

Voice: 콜리, 자신이 이 단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콜리 찬

9

Voice: 란 하 - 다 -      찬

13

Voice: 란 하 - 다 -

16

Voice: 찬 란 하 - 다 -

# credit

<천 개의 파랑> 만든 사람들

제작	서울예술단
원작	천선란
극작·작사	김한솔
작곡	박천휘
편곡	Greg Jarrett
협력편곡	강택구
연출	김태형
안무	김혜림
협력안무	김성훈 조인호
음악감독	신은경
무대미술	박동우
조명디자인	박성희
영상디자인	고동욱
퍼맷디자인	이지형
음향디자인	김필수
의상디자인	김지연
소품디자인	송미영
분장디자인	백지영
기술감독	최정원
무대감독	민지은
조연출	현지아
음악조감독	이하영
무대조감독	양승호
음향 관리감독	김경수
의상·소품 운영감독	최미나
반주/플래이백	박민아

프로듀서	최경화
제작	김아형(제작PD)
홍보	정혜윤
마케팅	심수연

프로덕션

원작	천선란, 『천 개의 파랑』, 허블출판사, 2020
음악	<b>Conductor</b> 신은경 <b>Drum</b> 조득연 <b>Bass</b> 김훈태 <b>Guitar</b> 남세훈 <b>Keyboard 1</b> 이하영 <b>Keyboard 2</b> 원혜영 <b>Flute</b> 성해라 <b>Clarinet</b> 주동우 <b>Horn</b> 김선영 <b>Trumpet</b> 장경한 <b>Trombone</b> 서울 <b>Violin 1</b> 권희정 <b>Violin 2</b> 전지혜 <b>Viola</b> 박미리 <b>Cello</b> 정다혜
악기	<b>SJ유적</b> 대표 정상진 실장 김충선
무대	<b>Stage Designer</b> 박동우 <b>Assistant</b> 김이환
무대제작 및 설치, 철수	작화공간 대표 이남련 협력업체 에스테이지, BBS컴퍼니
무대 레일, 플라이 장치	(주) 모션스미스 TD 정상훈 팀장 김승혁 팀원 신준섭 마정흔 홍성훈 황동현
무대 트러스, 호이스트 장치	큐리에이티브 대표 이업지 팀장 한규택 김진철
무대크루	권해성 김명규 홍은택 김성욱 조한용 최병필 오세정 김지윤 홍성훈 이호경 이용현 여범구 임유진 김루휘
조명	<b>Lighting Designer</b> 박성희 <b>Design Assistant</b> 정선주 <b>Programmer</b> 문동민 <b>Follow operator</b> 김주리 조은실 한상웅 현다연 <b>Crew</b> 김봉균 심효은 최미경 한동석
고보제작	<b>GOBO STUDIO</b> 대표 백민음
기술지원	<b>LOI</b>
조명장비	메이크센스 컴퍼니

영상	<b>Projection&amp;Video Designer</b> 고동욱 <b>프로덕션</b> (주)사운드얼라이언스 <b>영상제작감독</b> 김현지 <b>영상조감독</b> 김미르 신군재 <b>영상프로그래밍</b> 김현지 김미르 <b>영상오퍼레이터</b> 박상준 일러스트 및 3D모델링 배민호 게임엔진 아트웍 양이삭 <b>3D&amp;VFX</b> 아트웍 PEAK (서형석 황세준) <b>2D&amp;3D</b> 아트웍 YOUHYO (이혁진)
영상장비	프라임미디어㈜ 대표 박준성 이사 최재복 과장 김우중
음향	<b>Sound Designer</b> 김필수 <b>Associate Sound Designer</b> 김태은 <b>Head of Sound</b> 도수빈 <b>System Engineer</b> 김효정 <b>RF Engineer</b> 조현아 박채원

음향장비	사운드 비욘드 (Sound Beyond) 대표 김영욱 <b>System Engineer</b> 최아영 남궁민지 <b>Sound Engineer</b> 서유덕 김혜준
------	--

의상	<b>Costume Designer</b> 김지연 <b>Assistant</b> 김선아 오세현 <b>Costume Supplied by</b> 유니스(EUNICE)
----	---

의상크루	한복희 양인애 윤서윤 김이슬 이지혜 김나현
------	-------------------------

소품	<b>Props Designer</b> 송미영 <b>Assistant</b> 최혜림
----	---

소품크루	최혜림 정에진 안혜지
------	-------------

분장	<b>Make-up Designer</b> 백지영 <b>Assistant</b> 전진영 임이윤 <b>Crew</b> 오하나 조은혜 최혜지 허보람
----	--

퍼맷	퍼맷 움직임 지도 정명필 <b>Crew</b> 박형주 임 원 임우영 권선형
----	--

로봇렌탈	(주)도구공간 대표 김진호 <b>로봇</b> 이로이(실내순찰) 파트로버(실외순찰) 스팟(네발로봇)
------	--

스마트휠체어 협찬 로보휠	(주)카이로보틱스 대표 유지곤
------------------	---------------------

영화 ‘그렇고 그런 사이’ (영화의 음성 일부 사용)	감독 김인혜
----------------------------------	--------

자막 번역	조용경 (Helen Cho)
-------	-----------------

자막 오퍼레이터	신이현
----------	-----

홍보 사진	박귀섭
-------	-----

연습 및 공연 사진	김윤희
------------	-----

홍보 영상	박동준
-------	-----

연습·공연사진	김윤희
---------	-----

공연영상 촬영	<b>Ji아트</b> 대표 지화총 촬영 및 편집 최진규 촬영감독 이진호 김장진
---------	--

티켓 매니지먼트	클립서비스㈜ 이사 우아영 팀장 김세민 티켓매니저 박미솔
----------	---

배리어프리 자막제작	오롯플래닛 최인혜 황운주 이승아
------------	-------------------

홍보물 디자인	더그라프
---------	------

서울예술단 프렌즈	김연우 김연진 김예은 박기현 박세린 신이현 신지현 윤수현 이상화 이신우 이여원 임다영 최제아
-----------	--

서울예술단

단장 겸 예술감독	(공석)
사무국장	류상록
이사회	김옥량(이사장) 서재익(감사) 서연호 고희경 안성수 임상혁 이성훈 강지은

공연기획팀	최경화(팀장) 임아름 김아형 정다정 박태수 정혜윤 마희선 심수연
-------	---

경영관리팀	최준식(팀장) 박순진 주미석 강채정 이혜진 김보근
-------	--------------------------------

무대예술팀	최정원(팀장) 김경수(음향) 최미나(의상소품) 박민아(반주)
-------	--------------------------------------

단원	<b>실장</b> 이흥모(운영위원) <b>운영위원</b> 고미경 최인형 <b>지도단원</b> 민병상 최병규 이영규 수석 김현아 박소연 안재홍 정유희 <b>차석</b> 고석진 김백현 금승훈 이종한 오현정 리 은 김동호 유경아 김 연 오선아 조근래 김건혜 하은서 박혜정 변재범 형남희 정지만 송문선 김용한 이혜수 이은솔 이기완 이한수 최병희 윤태호 박재은 서연정 오지은
----	--

국립극장	
국립극장장	박인건
공연기획부	
공연기획부장	이동현

책임프로듀서	권태연
프로듀서	이재금
마케팅 지원	이서정 오수정

티켓마스터	김재경
하우스매니저	이선옥 박지현 변혜진
공연안내	정지윤 이인영 이지윤 이은혜

어린이놀이방	
무대예술부	
무대예술부장	손후윤(직무대리)
기술행정	김흥석
안전관리	목호찬
무대감독	양정원
조명	김종락
음향	이재식

영상	지병환
무대미술팀장	정복모
미술행정	김재영
장치 기술지원	김정규
소품 지원	김민주

교육전시부	
교육전시부장	김만수
홍보팀장	유옥경
책임프로듀서	우다솔
월간 국립극장	김보나
SNS	구해나
홈페이지	유정수

# SEOUL PERFORMING ARTS COMPANY

## 서울예술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재)서울예술단은 1986년 창단되어 한국적 가치에 기반을 둔 창작가무극 제작을 통해 한국의 공연예술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그동안 <윤동주, 달을 쏘다.>, <신과함께\_저승편>, <잃어버린 얼굴 1895> 등 대중성과 예술성을 두루 갖춘 작품들을 레퍼토리화 하여 신뢰도를 공고히 다져왔으며, <꿈뻘이, 이상>, <금란방> 등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는 동시에 <다윈 영의 악의 기원>, <나빌레라> 등 참신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대한민국 창작공연의 산실 역할에 힘써왔습니다. 더불어 국공립예술단체로서 국민의 문화 향수권을 위한 지방 및 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을 진행하고, 해외공연 등의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의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예술단은 창작가무극을 통해 한국적 가치를 공연으로 구현하고 우수한 공연예술 콘텐츠를 구축해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SPACtrum 회원 혜택

### 1. 정기공연 할인 (기본 30%)

- 할인 매수 : 작품 당 4매
- 예매처 : 유료회원 전용 예매처에서만 가능

### 2. 정기공연 사전 예매

- 권종/매수 : SPACtrum 할인으로 작품 당 4매

### 3. 각종 이벤트 초대 자격 우선 부여

- 사전 신청을 통하여 초대하며 참가 인원 초과 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초대

### 4. 스펙트럼 선예매 관련 메일 발송 (선예매 마감 전 가입 시)

#### <주의사항>

- 회원연장 및 재가입 시 동일 작품의 중복 혜택은 불가
- 유료회원 할인 예매는 회원님 본인만을 위한 혜택이므로, 양도 및 판매 불가
- 티켓 수령 시, 회원 본인께서 직접 신분증 제시 후 수령하셔야 하며, 본인이 아닐 경우 티켓 수령 불가
- 예매자가 많을 시, 조기에 매진되어 할인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
- 서울예술단이 안내한 예매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선예매 등 유료회원 혜택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연장 규모와 공연횟수가 적을시 사전공지를 통해 할인매수 및 사전예매 여부가 변경될 수 있음
- 정기공연이더라도 공동주최공연, 투자공연 등 서울예술단 외 타 기획사, 회사 등과 진행되는 공연의 경우 사전 공지를 통해 할인매수, 할인을, 사전예매 여부가 변경될 수 있음

## 공연문의 및 회원가입 안내

회원기간 : 회비 지급 확인일로부터 1년간

연회비 : 2만원

회원가입 : 서울예술단

홈페이지 서울예술단 홈페이지 [www.spac.or.kr](http://www.spac.or.kr)

문의 : 02-523-0986 (3번)



06757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내

Seoul Arts Center, 2406 Nambu Soonwhan-ro, Seocho-gu, Seoul, Korea, 06757

Tel. 02-523-0986~7 Fax. 02-523-0855 H www.spac.or.kr

T [www.twitter.com/seoulart](http://www.twitter.com/seoulart) F [www.facebook.com/seoulart](http://www.facebook.com/seoulart) I [www.instagram.com/spac\\_stagram](http://www.instagram.com/spac_stagram)